

과 교환기 수출을 협의중이다. 이동체 통신에 있어서는 호주의 본드 코퍼레이션이 헝거리의 부다페스트 시내에 셀룰러망을 건설하기로 헝가리 정부와 합의하였다.

한편, BT, US West, KDD 등은 기업연합형태로 소련의 동서지역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이들 동구권 국가는 대금결제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나, COCOM 제도상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총체적인 투자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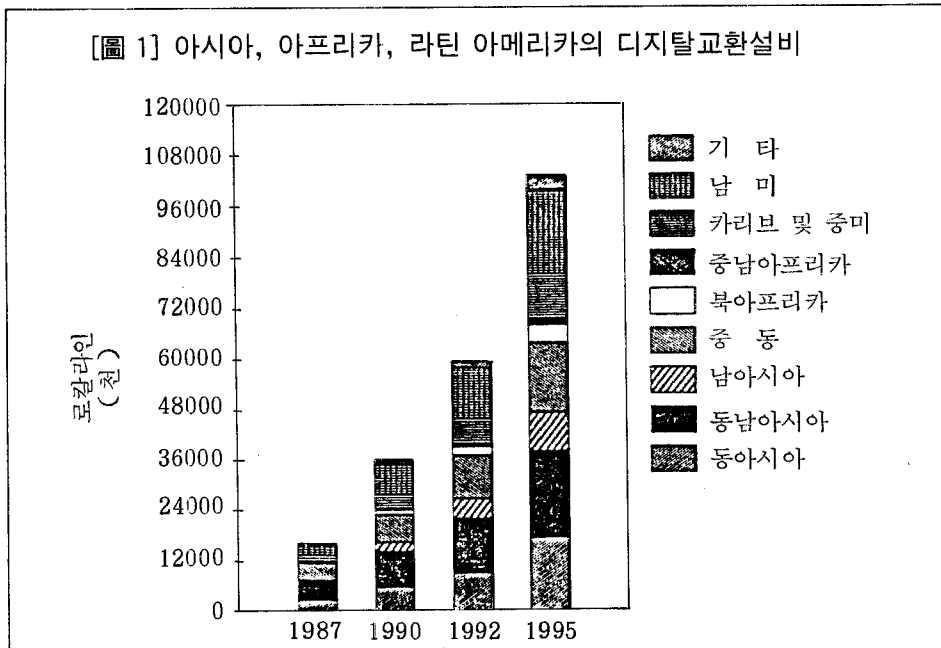
□ □

■ TI 89WR3320 ■

開發途上國들의 디지털통신망 구축현황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ISDN 으로의 과도기로써 디지털통신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아프리카·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디지털교환기술(digital switching technology)에의 전이노력 또한 지난 5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교환기기의 지역적인 시장규모도 급속히 신장했으며, 이 결과는 최근의 피라미드연구 보고서(Pyramid Research Inc., report)에서 밝혀졌다.

위의 세지역에 있어서의 디지털교환구조를 살펴보면 1985년에 총 회선 및 간선수는



출 처 : Pyramid Research, Inc.

295만 이었으나 1987년에는 665만으로 증가하였다. 이와함께 디지털교환기 시장규모는 1985년의 11억달러에서 1987년에는 22억달러로 증가함으로써 연간 48%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이 세 지역에 있어서의 1985년의 전교환시장의 40%를 디지털기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1987년에는 57%로 증가했다. 가장 커다란 시장점유율은 아시아(일본 제외)에 속하고 있는데, 1987년 교환기에만 14억 4천만불이 소요되었는데, 이 구조의 59% 이상이 디지털이었다.

이 연구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이와같은 디지털교환설비에 있어서의 증가율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제한된 ISDN 서비스 시행시기까지는 아직은 수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圖 1], [圖 2] 참조)

EK

RA89US1001

[圖 2]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개시계획

